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신임이사장 윤종성 집사 선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사진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이사장 윤종성 집사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이하-대기협 이사장 장기태 장로)는 지난 11월 9일(월) 오전 11시 전북 진안주천성대공원, 용담댐좌안매장에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이사장 장기태 장로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최수호 장로가 기도했다. 김윤경 목사는 시 133:1-3절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동행”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대기협 고문 엄영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총회 회무처리는 이사장 장기태 장로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김숙희 권사의 회계 보고와 안건토의를 진행하면서 임원선거에 들어가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신임이사장 윤종성 집사(여의도 침례교회), 부이사장 박종욱 목사(전주열린교회), 이규곤 목사(서울남현교회 은퇴), 사무국장 김중심 권사(안양대광교회), 회계 전영란 권사(영성교회), 감사 최수호 장로(박일양 집사 등이 선출되어 축하와 환영의 박수로 총회를 마쳤다.

신임이사장 윤종성 집사는 기자회견에서 1.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진가 발전을 위해 일할 것이며, 2. 사진에 대해 같은 취미로 모여 함께하는 전국의 사진인 특히 우리 기독교인이 뜻을 같이 하여 모인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3.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대 자연을 따라 전국을 순회하며 화인들을

해본 만물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이사장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하지만 여러분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분회의 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종성 이사장은 많이 부족하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 협회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윤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협회를 이끌어주신 장기태 집사(전 이사장)와 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이사장은 앞으로의 계획은 1) 침체된 지회를 활성화해 회원들을 확보하는 것, 2) 후반기 두 번의 모임을 실천할 것, 3) 교육을 낸 1회 이상 실시할 것, 4) 전시회를 갖는 것은 희망 사항이라며 이 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인사로 인터뷰를 마쳤다.

한편 대한기독교사진협회/대한기독교영상선교회 2009년 4월 20일 창립되었으며 초대 협회장엔 엄영수 목사(대광교회)를 추대하고 2020년 11월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협회는 사진 봉사자와 선교적 영상 자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교회의 사진 요청이나 촬영의뢰가 있다면 봉사한다는 것이 협회의 방침이다. 또한 본 협회는 부설인 <포토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기독교적 사명과 기독교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권장하면서 환영한다고 했다.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이하-대기협)는 지난 10월 26일(월) 오전 6시 남이섬 선착장에 대기 오전 7시 30분 첫 배를 타고 남이섬에 도착하여 기념촬영을 갖는 등 공개 물든 가을 단풍과 각자 멋진 경치를 배경으로 작품들을 카메라에 담아내며 회원들과의 즐거운 친목으로 정기총회를 마쳤다.

2020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총회 및 춘천성시화운동 연구소 개원예배

이수형 목사, “다음세대부터 시작해 교회, 지역사회 섬김 사역 전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이사장 이수형 목사)는 11월 5일(목) 오전 11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2020년 춘천성시화운동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예배는 김훈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 석광훈 장로(춘천율리클립 회장)의 기도, 박인관 목사(직전 이사장, 광영교회)의 설교가 있었다. 박목사는 “미가 6장 6절~8절을 중심으로 ‘이제는’의 제목으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뒤돌아 보며 우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을 베풀었으면 지금보다 교회의 인식이 더 좋아졌을 것’을 강조하며, ‘이제는’의 중심의 예배에서 지역 사회를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자”고 선포하였다. 오의석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순복음조은교회)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정기총회는 이수형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의 사회, 이병철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 주향교회)의 기도로 진행되었다. 지난 회기 사업 보고와 임원진 선출,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수형 목사는 다음세대의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와 개교회의 대외적 활동을 함께 나누고 협력하고, 춘천성시화운동 특별대담을 준비하여 1972년부터 현재까지 성시화운동을 소개하고 성시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춘천성시화운동 연구소 개원예배”를 개최하였다. 개원예배는 김훈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 박의범 장

로(CBMC 춘천지회 지회장)의 기도, 이수형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의 설교가 있었다. “다니엘 6장 3절”을 중심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다. 김중열 장로(신성감리교회), 신성균 목사(열린순복음교회), 이연희 목사(아미교회), 최상도 목사(사암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이영길 선교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하였다. 이영길 소장은 1972년부터 지금까지의 성시화운동 3세대를 설명하였다. 1세대는 운동 형성기, 2세대는 기관 형성기, 지금 우리들의 세대인 3세대는 정책 형성기로 구분하며 앞으로 연구소의 방향 정책연구와 기독교시민운동, 인물과 기관의 네트워킹, 디지털 플랫폼, 국제사역, 지역교회, 선교단체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간의 협력 촉진, 외국 유학생, 전문인 및 청년 연구원 제도 및 인턴십, 성시아카데미 사역 등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인 이수형 목사는 “춘천성시화운동 연구소 개원을 통하여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바라며, 내년 성시화 사역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다음세대부터 시작해 모든 교회와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2021년 사역비전을 밝혔다. 김창환 목사(은누리교회)의 축도로 연구소 개원예배를 마쳤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축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추수감사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충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움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시 30:11)

예/배/시/간

대예배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유치부 오전 11시

주일예배 주일학교: 오전 11시
창년: 대학부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30분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10시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심예기도회 매일 오후 10시
(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소진우 목사 특별사역

지저스타임즈 사장
JTNTV 가정예배 칼럼리스트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BS TV 칼럼리스트
H.P 010-8753-7179
교회 (02) 938-1232(대)

교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 (02) 934-1232

표어 : 그 한사람이 되라

담임목사 소진우
PASTOR SO JIN WOO

칼럼

쓰레기 대란, 지구를 살려라



이효상 원장
시인, 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원장

해를 거듭할수록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쓰레기 문제다. 필자가 자치위원으로 있는 남양주시가 인천에 매립하는 연간 쓰레기는 총 1,200만톤이다. 이미 초과됐다. 페널티(penalty)가 생각보다 만만찮다. 문제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맘대로 버릴 수 있지만 업체가 더 이상 가져가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남양주시는 쓰레기 20% 줄이기를 시작했다. 동별로 30%를 목표로 한다. 쓰레기를 최소화하려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다. 그래서 생 각해낸 아이디어가 아이스팩(ice pack)과 스티로폼(styrofoam)의 분리수거이다. 남양주시는 아이스팩 5개를 모아오면 100짜리 종량제 봉투를 주는 보상 수거제를 실시했다. '아이스팩'이 '나이스팩(nice pack)'이 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주민센터가 자발적 캠페인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장 서 전개하며 아파트 카페에 아이스팩 분리수거의 글을 올리는 등 독려하다보니 다산동이 전국적으로 1위가 됐다.

그렇게 해도 매주 아파트에는 일회용 쓰레기와 플라스틱

(plastic)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지고 있다. '쓰레기 대란' 우려는 전 세계이고 전 지구적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음식 주문량이 늘자 일회용품 사용도 함께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하루 평균 848(톤) 발생했다. 1년 전(734t)보다 15.6% 늘어난 수치다.

버려진 일회용, 아이스팩의 미세분자, 플라스틱들은 어디로 갈까? 최근 일상에서 마시는 물과 갑각류, 맥주, 소금 등을 통해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횟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생선, 운반, 소각 시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 토양을 오염시켜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면역체계를 무너뜨린다. 암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연간 8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흘러간 플라스틱 폐기물 때문에 해양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등이 지난 6월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내 부검실에서 바다거북 해부를 진행했는데 소장, 내장, 대장을 부검한 결과 비닐쓰레기가 나왔다. 이를 동안 진행된 검사에

서 바다거북 3마리의 몸 속에 24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과 호주 뉴캐슬 대학이 올해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에 의하면 평균 한 사람당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2000여개를 매주 섭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플라스틱은 통상 크기가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을 통칭한다.

이제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인 줄 알고 삼킨 어류가 우리의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여기에 환경호르몬을 배출해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우리도 매주 무게로 따지면 5g으로 신용카드 한 장이나 불펜 한 개를 먹는다는데, 한 달이면 찻숟가락 한 개 분량인 21g을, 1년이면 250g이 넘는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셈이다.

이같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로는 놀랍게도 우리가 주로 마시는 수돗물을 포함한 식수로, 한 사람당 매주 마시는 물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1769개를 섭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갑각류에서 182개, 소금 11개, 맥주 10개 등이 미세플라스틱 섭취의 경로로 밝혀졌다.

창조 환경문제 깊게 보고 멀리 보자. 일회용 쓰레기와 플라스틱은 해양과 수로를 오염시키고 해양생물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 아

니라 인류도 위협하고 있다. 플라스틱을 먹지 않으려면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을 자연에 버리는 일부터 막아야 한다.

인류가 촉발한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지구가 쓰레기장이 되고, 인간이 만들어낸 생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플라스틱 대량생산 60여년 만에 미세플라스틱 가득 찬 바다, 바다생물은 먹이로 착각해 먹고 인간은 그들을 먹고 그렇게 지구는 '플라스틱 행성'이 되어간다. 환경 파괴로 코로나가 생기고 인간의 복지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해 전

인 작은 플라스틱을 통칭한다. 이제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인 줄 알고 삼킨 어류가 우리의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여기에 환경호르몬을 배출해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우리도 매주 무게로 따지면 5g으로 신용카드 한 장이나 불펜 한 개를 먹는다는데, 한 달이면 찻숟가락 한 개 분량인 21g을, 1년이면 250g이 넘는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셈이다.

이같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로는 놀랍게도 우리가 주로 마시는 수돗물을 포함한 식수로, 한 사람당 매주 마시는 물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1769개를 섭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갑각류에서 182개, 소금 11개, 맥주 10개 등이 미세플라스틱 섭취의 경로로 밝혀졌다.

창조 환경문제 깊게 보고 멀리 보자. 일회용 쓰레기와 플라스틱은 해양과 수로를 오염시키고 해양생물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 아

이자, 생활 쓰레기를 최소화하며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자발적 주민 참여 환경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음식 배달시 일회용품을 최소화 한다. 시장을 볼 때, 조금 불편할지라도 가게에서 상품을 담아주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거부하거나 장바구니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한다면 환경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과 사업체가 환경친화적 실천을 채택하고, 창조세계에 심각하게 해를 입히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권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시급하다. 또한 개인과 지역사회, 교회 스스로가 적절한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세계를 잘 보존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만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 시민단체(NGO)들의 관심과 참여,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환경'은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행동이다.

지역을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 생태 환경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필라몬의 의문이 들기도 하고, 쉬 주저한다 한다. 힘을 내서 시작해야 한다. 가족과 이웃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창조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창조세계의 지킴이로 부름 받은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올바르게 실천해 보려한다.

지역 곳곳 복음전파 위한 미디어 선교 협력 다짐

지역 곳곳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또 한번의 협력이 10일 이뤄졌다.

GOODTV기독교복음방송(대표이사 김명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산하 수도서울노회(노회장 원종민 목사)와 업무협약을 갖고 미디어를 통한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예장백석 수도서울노회와 GOODTV가 지역 복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장 백석-GOODTV 업무협약수도서울노회는 예장백석 교단 산하 노회 중 서울의 지역을

리고 위치기반 서비스로 전국교회를 찾아볼 수 있는 '녹록' APP을 제작했다.

메시지, 찬양, 간증 등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녹록'에서 수도서울노회 소속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수도서울노회 원종민 노회장은 "지역교회와 방송국의 모든 수고와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이 땅에 세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대형교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싹싹줄같이 피어있는 작은 교회들이 이웃 속에 스며들어 지역 곳곳에 복음

GOODTV-예장백석 수도서울노회와 지역 복음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담당하는 이른바 '장자노회'로 교단 소속 120개 교회 가운데 45개 교회 120명의 목회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수도서울노회에 소속된 교회 및 목회자들은 글로벌선교방송단 동역교회 및 교회기자로 등록하고 지역 교회의 소식을 보내주기로 했으며 GOODTV는 TV, 인터넷신문 데일리굿뉴스, 주간신문 위클리굿뉴스를 통해 기사를 게재한다. 방송사와 직접 접하기 어려운 노회 소속 작은 교회들도 지역교회 소식 및 복음 전파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GOODTV는 작은 교회를 알

을 전파하는 것은 노회 산하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GOODTV 김명진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노회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프로그램에 담겠다는 의지일 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방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전하며 작은 교회들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GOODTV는 향후 노회와의 업무협약 및 연합을 통해 코로나 이후 맞이한 온라인 활용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 영상제작> 교육강좌를 마련한다.

문의 1522-5221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심의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허장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정분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jipress@hanmail.net / jtntvcpi@naver.com

▶팩스: 032)672-3031

▶HP: 010-5468-5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 부터~

▶1년 구독료: 5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예장(정통)총회 56주년 정기총회, 양정섭 총회장 유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열렸다.

9월에 열린 예정이었던 제56차 정기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10월로 연기되어 이날 제5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어 정기노회에서 목사임직 예배가 거행되었다.

1부 예배는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 인도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이영준 목사가 기도, 인도자의 성경봉독(마 28:16-20),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2부 회무처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원선거에 들어서 총회장 양정섭 목사, 부총회장 이영준 목사, 양정섭 목사, 한세전 목사가 유임되고,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 부총무 임세준 목사, 협동총무 김두

경 목사, 강대하 목사가 유임, 서기 전대식 목사, 부서기 민경구 목사,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 부회의록서기 이영숙 목사, 회계 김영의 목사, 부회계 김병섭 목사, 감사 한성욱 목사, 이순례 목사 등이 유임되었다.

3부 신 안건토의에 사업안과 예산안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으며, 회의록채택은 차후 56차 정기총회에 보고할



것과 정관변경 건도 만장일치 가결되고, 기타 안건은 접수되는 대로 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고전 장일치 가결되었으며, 회의록채택은 차후 56차 정기총회에 보고할

이어 순서에 따라 정기노회를 갖고, 각부 보고 및 안건을 처리하고 임원선출은 2021년 4월에 하기로 처리하고 안수식을 거행했다. 안수받은 목사는 다음과 같다. 송원민, 임재갑, 문준녀 등이다.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담임목사 박수영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기도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6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 입 생 모 집 요 강



김창숙 목사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함.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매주 월, 수, 금
장소: 꾸미오리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교암동182-3)
문의: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통신 신학생 수시 모집

● 명예박사 학위 안내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기관으로 불타는 사명은 있으나 여러 사유로 신학을 하지 못하신 분이나 중도에서 포기하고 계신 분에게 사명 감당의 길을 활짝 열어 드립니다.

- 사명자는 아무 조건 없이 수시 입학이 가능함
- 개인별 이수 과정이므로 수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02) 849-9395
(총회가입 및 목사 안수 상담)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룡

상임목사 박영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왕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취임감사에배



▲ 좌측부터 김철배 목사, 김명현 목사, 오범열 목사, 김철영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는 오는 11월 22일 수원순복음교회에서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취임감사에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에서는 그동안 대표회장으로 섬겼던 이재창 목사(수원순복음교회)가 이임하고 대표본부장으로 섬겼던 오범열 목사(안양성산교회)가 대표회장에 취임한다. 대표본부장은 김명현 목사(이천순복

음교회)가 2기 대표회장으로 취임한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와 사무총장 김철영牧사는 지난 8월 18일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모임을 갖고 경기도 31개 시군 성시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대표회장과 대표본부장으로 오범열 목사와 김명현 목사를 위촉하기로 하고 제2기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어 지난 10월 15일에는 김철영 사무총장과 오범열 목사, 김명현 목사, 성시화지도자아카데미 학장 김철배 목사 등이 만나 경기도 성시화운동본부의 활성화와 전략을 논의했다. 북음전도와 사회책임 사역에 전력하기로 했다.

이·취임감사에배 설교는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핏밭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가 전했다.

한편 오범열 목사는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과 예정 합동 전국호남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제19회 총회 및 대표 이·취임식 가져



한국교회언론회가 29일 양평 더힐하우스에서 제19회 총회 및 대표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는 예배로, 제2부는 총회로, 제3부는 대표 이·취임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제1부 예배에서는 공동대표 황규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찬송 1장과 서기 조성원 목사의 기도, 전문위원 최흥호 목사의 성경봉독 이후, 김은경 솔리스트의 영상찬양을 드렸다.

고문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조 목사는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하며 착하고 충실하게 일해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은 논조가 일관적이고 성경적이며 단어 하나하나 선택이 매우 적절하다”고 하면서 “한국교회언론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밝은 빛이 비추지게 될 것을 확신 한다”

고 전하였다. 이어서 찬송가 515장을 부른 후, 사무총장 심만섭 목사의 광고 후, 명예대표 박봉상 목사의 축도로 제1부 예배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제2부 총회에서는 대표 유만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사 최원호 목사의 기도, 서기 조성원 목사가 회원 61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하여 정관에 따라 총회가 성립됨을 확인하니, 이에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임원 개선에서 대표에 이억주 목사, 신임 공동대표에 임다윗 목사(파주 중만교회), 박정근 목사(거제 고현교회),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를 선출하였고, 이사에 권오현 목사(서울 시민교회)를 전문위원에 김관상(C채널 회장), 권순범(KBS 정책실장 역임), 김승욱(중앙대 교수), 김수진(전국학부모 단체인합 대표)을 추가 선임기로 하였다.

제3부 대표 이·취임식에서는 공동대표 허남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먼저 2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언론회의 활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사 한상필 목사가 기도한 후, 박봉상 명예대표가 유만석 직전대표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유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동역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드린다”고 전하였다.

이어서 공로이사 한상필 목사가 신임대표를 소개하고, 유만석 목사가 이억주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하였다. 이억주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는 말씀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멀리 가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축사를 맡은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수호하는 한국교회언론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큰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하였다. 박재현 목사가 축사를, 홍갑홍 선생이 바이올린 축주로 축하를 전하였다. 이날 한국교회언론회는 변함없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알리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며, 새로운 인재들과의 동역과, 한국교회 위상을 높이는 데, 역할을 모을 것을 다짐하였다.

예장합동(보수)한중노회 181회 정기노회 열어



“신앙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한 노회장은 말씀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자격을 갖추자는데 핵심을 두었다. 신앙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할 저소를 예비해 두시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노회장 한기장 목사는 지난 10월 19일(월)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소재 세향교회당(담임 김관호 목사)에서 제 181회 한중노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임원선출로 새로운 회기에 들어갔다.

노회장 한기장 목사의 인도로 1부 개회 예배가 시작되어 한 노회장의 기도하고, 서기 김관호 목사가 성경봉독(계시록 1:8)을, 한기장 노회장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길은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하여 깨어 있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은 사랑이며 신부로서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오래 참고 인내로서 신앙 예수를 영접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의 취지로서 말씀을 전했다.

끝으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원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은 세기의 양식을 섭취하고 육신의 관리를 잘해야 하고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영원 생명이 있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서 영원히 보장되는 영원 생명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신부로서의 삶은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는 오직 신부 단장이라고 했다.

이어 중경노회장 이규필 목사(동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중경노회장 서동기 목사(소망교회)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했다. 이날 분별, 분장위원은 배영자 목사(금촌시온교회), 김관호 목사(세향교회)가 맡았으며 집례 자의 축도로 마쳤다.

3부 노회장 한기장 목사의 사회로 제181회기 회무처리에 들어가 회원점명과 개회선언, 회순제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임원선출에서 현 노회장과 임원들이 그대로 유임되었다.

한중노회 제181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한기장 목사, 부노회장 김관호 목사, 서기 김관호 목사, 부서기 박기철 목사, 회의록서기 한복희 목사, 부회의록서기 송창훈 목사, 회계배영자 목사, 부회계 송인성 장로 등이다.

회무처리가 속개되면서 다루지 못한 잔무는 임원회에 일임하고 내외장소는 금천시온교회(회의록서기 배영자 목사)로 정하고, 노회장 한기장 목사의 폐회 선언으로 제181회기 노회를 마치고 한 노회장의 폐회예배를 끝으로 축도하고 마쳤다.

방역 단계 조정에 대한 한교총 논평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세분화된 대응지침을 통해 종교시설의 단계적 방역행동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시대에 맞게 K방역의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부가 방역의 기반 위에서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방역의 기반 위에서 예배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자존감 있는 예배’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조치로 인해 1단계의 경우 대략 50% 수준에서 모든 종교시설에서 공히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회의 등의

모임과 식사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5단계에서는 30%, 2단계에서는 20% 정도가 회집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계조정과 예측 가능한 대응원칙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서 공히 같은 물이 적용되는 점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 본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회자와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도 문제부의 별도 공문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깊이 인식하여, 교회의 집회를 통한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축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2020 추수감사

2020 표어

● 전도와 선교하는 한 해

예배 시간 안내

새벽 예배	새벽	5:30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저녁기도회	오후	8:00
토요일자교육	오후	7:00
청년/학생부/동합예배		
수요 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예배	오후	7:30

담임목사 정대성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P.H 010-6418-3468

축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2020. 추수감사

예배 시간 안내

주일 대 예배	오전	11시 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00
수요밤 예배	오후	7시 30
금요참기도회	오후	9시 00
구역예배(금)	각 구역 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00

담임목사 이규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 02)854-1326

세성시화운동본부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협력 방안 논의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신우철 완도군수와 만나 홍보 및 참여 논의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2일 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와 오찬모임을 갖고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와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나눴다.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완도항 해변공원 일원에서 “자유의 바다, 바닷말이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를 열린다. 박람회는 전시·체험 프로그램, 비즈니스, 학술 행사, 문화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완도로

와 국제해조류산업 클러스터 협력 체계 구축으로 해조류산업 선정 및 국가적 위상제고, 미래식량, 신소재 및 신약,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해조류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지류산업 활성화로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정 바다 수도 완도, 건강의 섬 완도”

“대한민국 청정 바다 수도 완도, 건강의 섬 완도”를 군정 슬로건으로 내세운 신우철 군수(이학박사)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며, 따뜻한 복지사회와 고품격 문화·관광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전 개최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때는 140만 명이 다녀갔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박람회를 통해 완도산 해조류가 우수하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해외시장 선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해조류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조류를 소재로 하는 바이오와 의약, 뷰티,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과 4차 산업을 융복합해 해조류산업이 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 등과 협약을 맺고 산학협력을 진행 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지난 2017년 한국과 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 기념대화와 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행사를 제의동포재단과 주(韓)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성대하게 치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시군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20여 국가와 미국, 일본, 호주, 과테말라 등 국내외 각 도시 성시화운동본부와 협력하여 2021국제해조류박람회의 홍보와 협력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전남성시화운동본부와 함께 모색해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대사인 김경두 완도선교교회 담임목사와 보성사랑의교회 김갑을 목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완도는 265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군도로 이루어져, 리아스식 해안으로 갯벌과 해조류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바다 밑에는 맥반석과 조석이 깔려 있어 자체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2,200여종의 바다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청산도는 2007년 12월 1일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되었으며, 푸른 바다, 푸른 산, 구들장, 돌담장, 해녀 등 노닐의 풍경과 섬 고유의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섬이다. 또한 해상왕 장보고의 유적지를 비롯해 신지도 명사십리해수욕장, 완도수목원, 고산 윤선도 유배 보길도 등을 탐방할 수 있으며, 김, 마역, 다시마, 툇, 광어, 전복 등 완도 특산물로 만든 남도 음식을 맛보거나 구입할 수 있다. 특히 해조류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해양 지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는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자원봉사도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100가정에 친환경 살균소독수와 각종 식료품이 담긴 ‘코로나19 방역키트’를 전달하며 잠깐이지만 어르신들께 안부를 전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자원봉사를 다녀온 손주원 학생(흥진고2)은 “선물을 전해드릴 때,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셨고 집에 돌아와서 물 한잔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셨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죄송하고 아쉬웠다”며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어르신들이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 목사는 수료식에서 “자유를 빼앗고 국민을 통제할 때부터 나라라는 가난과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제42기 성민청소년복지학교를 수료한 청소년들이 자유, 민주, 사랑, 섬김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것을 큰 자의 덕망으로 삼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바른 세계를 확립해 지혜롭게 미래를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민청소년복지학교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방학기간을 이용해 개교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 후로 일정을 변경해 진행했다.

한가협 대표총재 대표회장 임원 취임예배 드려



한국복음가수협회(이하 한가협) 대표총재, 대표회장 임원 취임감사예배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가졌다.

대표회장 김지혜 목사(주님제일교회)는 지금까지 찬양을 통해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기도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복음가수협회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에 헌신할 사역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여 찬양사역자를 양성하여 각종 예배 및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예배는 에바다북찬양의 축하공연(안무 김슬기 목사)으로 총재 손 덕 목사의 대표기도와 총재 박정자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이아네스 교수의 특송,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원로목사가 시편 115편 17-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산자와 죽은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피종진 목사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삶을 항상 주관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살아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역설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과 정치인을 위하여 ▲기독교기관과 대표를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세계선교와 북한 선교를 위하여 ▲한국복음가수협회의 성장을 위하여, 이선기 장로 정대수 장로 김금숙 목사 한성덕 목사 최미영 집사 김영광 목사가 특별기도를 했다.

김순덕 전 교수(칼빈대학교)의 축하와 심태섭 총장이 축하 인사를, 이어 추대장 수여, 임명장을 수여하고, 피종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취재 백건기 기자

한교연 산하 성민원 42기 성민청소년복지학교 개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회원 단체인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이 지난 10월 24일, 31일 양일에 걸쳐 군포제일교회 복지센터에서 청소년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기 성민청소년복지학교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완화된 후로 늦춰져 두 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는 인재 양성

최근 한국교회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들며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기 위해 성명을 내고 반대 기도회와 집회를 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교회는 ‘정부의 불공평한 방역지침’으로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받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성민청소년복지학교는 미래 사회의 주축이 되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의 건강한 주역이 되도록 ‘세계를 품고 자유를 사랑하자’를 주제로 다양한 이론교육을 실시했다.

24일 있었던 첫 번째 강의는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파트너 변호사)가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30일에는 고세진 목사(한교연 대외협력위원장, 전 아세아연합신학대 총장)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같은 날 이학재 강사(HH컴퍼니 대표)가 ‘도전과 실패의 함수관계’를 주제로 세 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박성제 강사는 ‘하

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 1:27)’, ‘너는 여자와 동침할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 ‘동성애는 하나님 나라와 양립할 수 없는 추악한 죄목일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무조건 우대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권에 기반해 역차별을 야기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세진 목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지배하거나 못하게 하는 제도로 실제 주장과는 반대되는 거짓된 제도”라며 “예수님은 부의 재분배가 아닌 각 개인이 가진 것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다. 기부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선한 문화”라고 강조했다.

강의를 들은 정시현(흥진중2) 학생은 “차별금지법을 많이 들긴 했지만, 동성애와 연관된 것인지 몰랐는데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공산주의 국가 국민들은 자유가 없고 결국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

이번 성민청소년복지학교에 참가한 중·고등학생들은 코로나19로 봉사자의 발길이 끊겨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

피종진 목사 초청 11월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T: 02)3411-9191 F: 02)401-7770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 | | |
|----------------------|---|
| 1(주) 오후 2(월) 오전 | 김포 감리교회(조경숙 목사) ☎ 010-8222-1992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대표회장 정성업 목사)
장소: 김포 온빛교회(정성업 목사) ☎ 010-8990-8784 |
| 5(목)~ 6(금) | (사)한국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인 목사, 대표회장 정영희 목사)
장소: 군산 꿈대로되는교회(정영희 목사) ☎ 010-6359-3757
평택 안중교회(윤문기 목사) ☎ (031)681-3558 |
| 8(주) 저녁 | 나사렛성결회 경기남지방회 연합성회(지방회장 유광열 목사, 총무 최영환 목사) |
| 9(월)~11(수) 16(월) 오후 | 아산 설화산기도원(원장 노베로 목사) ☎ 010-8234-0690
오산리최자실기독교원(원장 권경환 목사) ☎ (02)6181-9182
주최: 작은자실기독교회(회장 양유식 목사) |
| 17(화) 오전 | 오산리최자실기독교원(원장 권경환 목사) ☎ (02)6181-9182
주최: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인 목사, 준비위원장 서나라 목사) |
| 17(화)~19(목) | 대구 주안산수양원(원장 박찬애, 박찬섭 장로) ☎ (053)768-6205
주최: 미국 SUN World Mission(대표 미국 최예종 목사) |
| 23(월) 오전 | KAICAM (사)한국독립교회화산단연합회(회장 송용필 목사)
장소: 서울 햇빛트리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김윤희) ☎ (02)3673-1329 |
| 26(목)~27(금) 28(토) 오전 | 칠곡 국제자유영성원(원장 박미현, 원로 권영철 목사) ☎ 010-6514-7371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02)741-4370
주최: 국제선교사아카데미(이사장 서진경[아론] 목사) |

대한예수교 장로회 번성교회

축 추수감사

2020 번성표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예/배/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웨신 총회장)
Rev.(D.Min): 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34(갈마동 336-22)
☎교회: 042)523-3191 FAX: 042)523-3090 E-mail: pj2863@hanmail.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2020 VISION
광주에서 전 세계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부목사: 김미경 협동목사: 유한주, 양인식
사무장: 안종기, 하성준, 함용호
협동장로: 이창수, 은퇴장로: 공재룡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부 8:00 2부 9:00 3부 11:30
주일오후: 오후 1:3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5:00
금요철야: 저녁 8:00

담임목사: 하창범
신복합사/교육혁신사
예배예식장/전통예배
지퍼스온라인예배
한글로고/한글로고

비율산교사학연구원(한독성당)교원조합의회
푸른솔협동조합(상담및대안교육전문)
푸른솔노인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47,
(영무에다움 2차후문 앞 수완중 옆) TEL: (062)953-4620 H.P: 010-8604-6075

▶게시특 9장 강해(55)

예비처에 갈 자와 순교할 자

(지나호에 이어서)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알곡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수적으로 견전하게 말하는 분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받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는 말씀을 반대로 풀어 버립니다. 즉 육적 신자들만 해하라는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게 9:1-4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풀·나무'를 해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첫째 화가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풀은 하늘나라의 영생과 관계없는 금생의 분깃으로만 기뻐하며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땅의 나무는 영생의 열매가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풀과 나무는 육적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환란 날에 배도하여 멸망으로 끝나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알곡 성도입니다. 알곡 성도는 앞서 말씀한 게 6:11 말씀대로 '순교한 동료 종과 형제'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즉 순교할 신앙에까지 올라선 자들입니다. 이들을 상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교할 성도들은 환란이 시작되어서 한 때(1년)가 지나고 두 때(2년)가 지나는 동안에 미적대지 말고 앞서 순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두 때에 순교하는 자보다 한 때에 순교하는 자가 상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순교할 자가 순교 안 되었을 경우에 그들을 황충이 군대가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순교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역사

순교할 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육적 미련과 신앙의 불순물 때문에 순교를 주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5개월 동안 황충이의 전갈이 쏘는 권세에 의해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의 미련과 불순물이 온전히 빠져서 결국 순교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황충이의 괴롭히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1,260일 기간 중에 마지막 남은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1개월 안에 순교할 자들이 모두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환란 날 순교한 자들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굳게 정착된 믿음 안에서 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5월)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다섯 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다섯 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황충이의 화의 고통 중에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임을 당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교자입니다. 이런 자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습니다. 순교자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여 추수하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교회의 분복(分福)입니다.

황충이의 화를 받는 알곡 성도는 순교할 자뿐만 아니라 예비처에 갈 자들도 해당됩니다. 예비처 성도들은 5개월 동안 황충이의 화를 받으면서 알곡이 되어진 후 예비처로 인도 받아 후 삼 년 반 동안 그곳에서 보호양육을 받았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비처 성도들도 황충이의 화로 인하여 심한 고통은 받지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황충이로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순교할 자와 예비처로 갈 성도

5개월 동안 황충이의 화를 받은 후, 순교할 자는 순교하게 하고, 예비처 성도들은 예비처로 인도 받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것은 곧 환란 날에 들어가서 5개월의 황충이의 화를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케 되지 말고 미리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또 순교할 자는 앞서서 순교하라는 말씀입니다.

황충이가 주는 고통이란

6월)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6월 내용이 5월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 날들에 왜 사람들이 죽음을 구할까요? 왜 죽으려고 몸부림을 칠까요? 이는 황충이가 주는 고통이 너무 심하므로 그 고통 중에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나으니가 죽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들이 죽으려고 애를 쓰는 고통 중에 그들 속에 깊이 감춰졌던 미련, 정욕, 자기 합리화 등 인본적인 것들이 할 수 없이 솟구쳐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죽음을 구할 정도에까지 다다르면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7월) 또 그 때부터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고, 머리에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 때부터의 모양이 어떠한가? 황충이가 주는 고통이 너무 심하므로 그 고통 중에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나으니가 죽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들이 죽으려고 애를 쓰는 고통 중에 그들 속에 깊이 감춰졌던 미련, 정욕, 자기 합리화 등 인본적인 것들이 할 수 없이 솟구쳐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죽음을 구할 정도에까지 다다르면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계 17:8) '내가 본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전에 있었다'는 것이 단 8:10-12입니다. 단 8

장은 구약시대 실존했던 작은 썰인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를 계시했고 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2,300주야 동안 엄청난가 괴롭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다니엘서 7장의 작은 썰인 종말의 적그리스도, 즉 황충이의 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과거의 황충이의 모양인 것입니다.

단 8:10-12에서 '하늘의 군대'는 구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우리가 모이면 군대인 것입니다. 그 군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을 땅에 던지고 짓밟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썰인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광장히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역사입니다. 단 8:11에 '군대의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군대의 별들'은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입니다. 작은 썰이 자신을 하늘의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즉 하나님에게까지 높여서 작은 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을 말씀합니다.

그로인하여 매일 드리는 회개기도도 없어졌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소도 헐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깨달았듯이 황충이의 화는 환란 날에 순교할 자이지만 순교하지 않은 자들과 예비처로 갈 자로 환란 중에 이미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이들이 한마디로 알곡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축정이 같은 신자들에게는 그 화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종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어서 따라오는 자들, 즉 순교할 자들과 예비처 성도들에게 예배를 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1개월 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 가서 예배를 못드리고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지옥 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 단 8:12에 그 작은 썰이 '진리를 땅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오늘날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7년 환란을 겪게 하셨고 그 환란 중에 순교하게 해주셔서 주 재림 때 첫째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러한 것을 땅에 던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일체 믿을 수 없게 하고 전혀 가까이도 못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 작은 썰이

그러한 역사를 '마음대로 행하며 변성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작은 썰인 다니엘서 8장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꼬집어내어 땅바닥에 패대기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으며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림으로써 하나님을 최고로 모독하는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전 3년 반 끝날 무렵 등장하는 메뚜기들의 모양은

앞으로 등장할 다니엘서 7장의 작은 썰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의 모양이 다니엘서 8장의 작은 썰의 잔인무도함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실제 사건입니다. 앞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7년 환란 중에 전 삼 년 반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실제 있게 될 사건들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고' 했습니다. 말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자신이 태운 주인을 위해 장애물을 겹쳐놓고 전진전략 앞으로 나갑니다. 적진에서 밟아치는 화살과 무기 공세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것이 전쟁터에서 달리는 말입니다. 욥 39:1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에게 고유한 특성을 주신 것이 옹골무쌍함입니다. 앞으로 환란 날에 전 삼 년 반이 끝나가는 5개월 동안 우리는 고통받는 그 메뚜기들이 이와 같이 옹골무쌍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옹골에 의해 고통을 받아서 죽을 것 같은 데도 그들은 전쟁터에서 중단 없이 달리는 말처럼 계속 고통을 더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메뚜기들이 '머리에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금 면류관은 이삼사 장로가 쓴 면류관 같이 목숨까지 버리고 순교한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금 면류관과 비슷한 것을 썼는데 그것이 금 면류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충성되게 일하여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짓밟는 등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했으므로 이긴 것인데 영원히 이긴 것이 아니라 결말은 패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목사코너 279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일곱 명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예장진리 총회장/CJTN tv 부이사장)

(행 6:1-7)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교회 안의 분사, 구제 사역과 교회 밖의 전도사역 등을 담당할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들 일곱 명을 뽑아 뽑았습니다. 이는 신약교회 전체, 즉 오늘날 성령 시대, 은혜시대의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을 본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즉 은혜시대의 교회 직분자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 듣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한 자란 열 5:18의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을 주인으로, 주관자로 자신을 지배하시고 자신을 도구로 하여 성령이 역사하며 일하시고 성령이 자기 통해 열매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지혜로 충만한 자는 고전 1:24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그리스도라고 하신 바와 같이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진리 지식으로 충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평판이 좋은 자들이라 했으니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좋은 평판의 사람이란 뜻이 아닌 헬라어 원문, 마르티르무노스(μαρτυριμνος)의 원뜻인 '증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의 증거가 있는 자를 뽑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수행하리라.

본문 5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직분자의 자격을 계시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이 충만한 자는 행 2:4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발설케 한대로 말하는 자이니 곧 막 16:18, 믿는 자들의 표적이 새 방언을 말하리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았다는 것은 행 4:31의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즉 위협과 죽임당할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담대히 증거함이니 이는 설령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리라. 하늘나라에서 부활체로써 영생하리라 하는 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면 이는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격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기도한 후 안수하여 직분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일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일이 하나님 주권과 그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임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자들을 인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그들 시각과 기준으로 뽑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택정,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세우신 것이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쳐 주옵소서.' 라고 사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이 안수는 임직, 성별과 성령 은사 전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안수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성별시켜 훌륭한 직분을 세우신 것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축 2020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담임 이규필 목사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예희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움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동기 목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이파크 A상가 2층
H.P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김대일 목사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임상국 목사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신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서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4, 3층(신천동)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고성규 목사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2:00
심야예배 오후 7:30

담임 장승현 목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곡로 62-5(봉곡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예배 오후 7:00
금요잠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담임 사금열 목사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담임 장한국 목사
경기도 의왕시 개원대화로 10, 701호(내선동)
홈페이지 http://j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오후 8:00
금요기도회오후 9:00
2시 기도회매일(월-토)오후 2:00

담임 이정민 목사
서울시 관악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 여름 타작마당 17 |

여름의 징조(6)

영안이 열려야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다음 시간 이어서)

다같이 「을 2:17-20절」 까지 성경을 펼쳐 놓고서, 기록하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1) 씨가="생명의 씨를 말함" 말씀도 씌요, 2) 흙덩이="육신을 가리킴"육적인 삶을 말한다. 여기 생명의 씨가 흙인 육 덩어리를 함 있게 차고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육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다. 생명의 씨인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육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을 이기지 못한 결과이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 마지막 때에는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육을 이기기 가 너무도 힘든 다는 것이다. 생명의 씨를 심었는데도 육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참으로 비참한 신앙이 아닐 수 없다. 생명의 씨가 흙덩이인 육 안에서 썩었다. 육을 차고 나와야 하겠는데, 썩었다. 그래서 창고가 황량해졌다고 했다. 여기서 창고는 천국의 모형인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다. 일단은 교회로 보는 것이다.

3) 공간이 부서졌다고 했다.

공간은="성도의 심령"을 가리킨다. 말세에는 성도들의 심령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신자들의 심령이 부서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곡식이 시들었다는 것이다. 곡식이 시들었다는 것은=>말씀이 시들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집중들이 어찌 신음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집중들이 신음한다는 것은 탄식한다는 말이다. 집중들은 제물을 말한다. 구약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집중을 잡아드렸다. 여기 집중은 제물 중에서 A급을 말한다. 이것은 사도급이라고 볼 수 있다. 장로급, 목사급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도급인 집중이 신음한다는 것이다. 탄식한다는 것이다.

4) 소떼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 고 했다.

소떼는 사목자, 집사급으로도 볼 수 있다. 좋은 집사가 여기 좋은 소떼에 해당되겠다.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바로 소떼에 해당된다. 그런데 소떼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했다. 그 이유는 곡식이 시들었다고 했다. 말씀이 시들었다고 했다. 소떼

에게 필요한 것은 풀이 있는 초장인데, 초장이 없다는 것이다. 말씀이 없다. 또한 양떼들도 황폐해 되었다고 했다. 일반 신자들이 초장이 없고 풀이 없으니 황폐해 된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기근이다.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집중들은 장로, 집사, 성도, 사도, 또는 일반 신자들로 볼 수 있다.

5)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즉 기도를 했다는 뜻이다.

불(진노, 심판)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고, 화염이 들(세상)의 모든 나무를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즉 진노, 재앙, 환난으로 말씀의 초장을 삼켜버렸으며,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웠다는 것은 육적인 교회 신자, 육적인 세상의 신자들을 모두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기근이 닥치자 들의 집중들도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이다. 들의 집중들은 예사와 같은 자, 육적인 자, 세상 사람들, 이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이다.

왜 위에서 보신대로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 강물들이 말랐기 때문에,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물들이 말랐다는 것은 "강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들이 말씀의 강수가 다 말라서 없다는 말씀이다. 이것은 말세에 말씀이 없는 교회가 다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다고 했다."

들은=>"세상""타락된 교회""옴니교회를 말함" 그리고 초장이 즉 말씀이다. 불에 삼켜졌다고 했다. 지금 이 말씀은 요엘 1:17-20절에 있는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과 환난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은 끝장나고 말 것이다. 영적인 것도 망하고, 소떼도 망하고, 집중도 망하고, 높은 자들도, 목사도 다 망하는 것이다. 장로나, 집사, 권사도, 평신도도, 다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에는 제사장의 딸들이 통곡한다. 농부의 자식들이 통곡한다. 자기만 못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못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가?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똑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그 함한채를 라헬에게서 빼앗아 올때에 레아가 무어라

정기남 목사
원협인

고 하느냐? 야! 너는 아곱인 내 신랑을 빼앗아 잠을 자면서 이 함한채도 쓰지 못하게 하느냐고 한다. 그 때에 그렇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함한채를 내게 달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신랑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입이 하마 입처럼 벌어진 레아는 창 30:16에서 /저녁 때 아곱이 들에서 오니,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는도다. 이는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의 자귀나 무로 당신을 빌렸음이라."하니, 그가 그 날밤, 레아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라헬에게서 자기 아들이 빼앗긴 함한채를 가지고 오려다가 함한채 대신 아곱을 양보한 것이다. 그래서 입이 하마입처럼 벌어졌고, 저녁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들에서 돌아오는 아곱을 데리고 간다. 당신은 오늘 밤, 내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의 함한채로 당신을 빌렸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날 밤, 아곱이 레아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졌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임신하여 낳은 자식이=? 창 30:18에 「잇사갈」이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말씀을 본다. 여기서 아곱을 데리고 가서 동침한 레아란 여인은 무엇인가? 옴니의 모형이요, 표상이다. 그리고 라헬은 육적으로 고독하다. 그래서 함한채를 끌어 갖고 우는 것이다.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함한채를 끌어 갖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그래서 홀로 사는 여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한다. 성경에서 과부가 되라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라헬이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보셨을 것이다. 그래서 영안을 완하게 열어 주신 것이다. 영안이 완하게 열릴 때에 라헬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림자를 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두 살 아래로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III. 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37-**실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실상(實狀 Actual) 기도를 하라

(지난호에 이어서)

1.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윗,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출 3장 4절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신약에서도 주의 사자가 빌림을 부르시고(행 8:26, 29),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였으며(행 9:4), 또한 베드로도 성령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와 말씀하셨으며(행 10:19), 계시록 3장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당사자들만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 직접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신약시대 이후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그 이유는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되었던 때이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소리로 말씀하시고,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직접 나타나시곤 하셨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셨고(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 또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감정을 통해 느낌으로 전달되었는데 이것을 영감의 역사,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오는 느낌과 결과가 성경과 일치될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이 순수치 못하고 불순하다든지, 죄가 남아 있다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과 대면해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2. 주님과 대화하라.

사무엘하 5장 17-25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왔을 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 「하나님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고 하셨으며, 여호와와 영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다윗은 큰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면 우리는 화답해야 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다」로 시작하여 상호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자이시므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과, 부모와 자식과 같은 입장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대화 통로로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이성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 속에 오실 때도 있고,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느낌으로 오실 때도 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온몸의 오감을 사용하여 오실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오실 때도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상태인 비몽사몽, 꿈 같기도 하고 생시 같기도 한 어렴풋한 상태(half dreaming or half awake)에서 가장 잘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 충만한 상태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과 교통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실패하는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첫째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으려 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신비한 현상을 느끼려고 했기 때문이며,

셋 번째는 실존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존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느낌이 나고, 주님과 우리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는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근심하신다. 이때 성령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

송택규 박사
JNTV 주필

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 5:37-40)

다섯째는 나쁜 생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실패한다. 불순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러한 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데 이때 대화가 되고 또 응답이 왔다면 그것은 마귀와 대화하고 마귀가 가져다준 응답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도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도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7-10)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의 책 「성녀 테레사: 내게 빛이 되어 주소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미국의 뉴욕타임지는 2010년 8월 24일자에서 「테레사, 신의 부재 갈등」이라는 헤드라인 밑에 「예수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어둠, 외로움, 고뇌, 남몰래 한탄」이란 부제를 단 기사를 내보냈다. 테레사 수녀는 정신적인 동지 마이클 반 데어 피트(Michael van der Peet)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는 당신을 특별한 사랑하나 저에게는 허무와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테레사 수녀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인가.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축 2020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목사 서명범, 목사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영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향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철야 오후 8:00

담임 김진호 목사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0번길 17(심곡동)
H, 010-7788-0091 T, 032-612-0190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종성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담임 박원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뽕엘중앙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6: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00
금요철야 저녁 11:00

이주홍 목사

인천광역시 서구 장곡재로 366(가좌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별·1급·2급·3급·4급)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능곡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일에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홍형표 목사

한국침례신학회 총장
시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 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속(직접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2층, 3동 101호 안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한국교회언론회, 방송법은 종교방송의 특수성 인정해야한다

대표 이억주 목사.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이억주 목사)가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2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10월) 21일에는 심의 소위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1일과 4일에 CTS기독교TV의 '긴급 대응-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하여, 심의 위원 1인(이소영)은 '관계자 징계'를, 허미숙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강진숙, 박상수, 허미숙)은 '경고'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어 "이렇듯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견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하면 지난(10

월) 28일에는, 지난 7월 9일 FEBC극동방송에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한 것을, 3인(허미숙, 강진숙, 박상수) 위원은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기독교계 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내린 결론은 똑같다. 두 방송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에 나타난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하여 말한 것"이라며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소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방통심의위(소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억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관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방통심의위원들은 교체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윌러 "방송이 객관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 방송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방송하는 기독교계 방송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 법원, "동성결혼 퇴학시킬 수 있다"... 풀러신학교 승소

종교 기관 면제 조항 적용



미 연방법원이 종교적 신념과 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한 학생을 제명한 풀러신학교의 손을 들어줬다고 LA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 내 교회 및 기독교 단체 등이 동성결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A중앙일보에 따르면 7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방(담당 판사 콘수엘로 마셜)은 조안나 맥슨 등이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소송과 관련, 신학교 측이 요구한 소송 각하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시작했다. 풀러신학교 재학 당시 동성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맥슨씨는 소장에서 "동성결혼자에 대한 퇴학 조치는 연

방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러한 풀러신학교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종교기관면제(Religious Organization Exemption) 조항을 적용했다.

마셜판사는 풀러신학교의 소송각하 신청을 승인하며 "동성결혼, 혼외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으며 연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풀러신학교측 변호를 맡은 베크 로펌은 성명을 통해 "풀러신학교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기독교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특정 윤리, 도덕적 기준 등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회, 신학교 등 종교 단체는 각자의 종교적 믿음과 사명에 따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풀러신학교는 웨스트민스트, 덴버, 트리니티, 고든콘웰 등과 함께 미국 내 대표 복음주의 한교로 재학생은 3500여명이다.

제공 윤광식 기자

한미 신학포럼에서 밝혀진 성경해석의 새 지평

서사라 목사, 저서에 대한 신학적 평가



▲ 서사라 목사 권호덕 교수.



교집단으로 타락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비 하는 일에 몸을 던졌다.

또한 이단들과 싸우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단에 대항하여 진리를 변증하거나 해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신학자가 없었더라면 교회는 상당히 많이 방황했을 것이

다.

신학교수들은 교회에 새로운 운동이 전개될 경우, 더구나 그 운동이 기존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그 운동의 본질을 확실하게 분석

하고 이해한 다음 교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 이번 신학포럼은 서사라 목사의 저서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 목사가 특별한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기록한 책들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 호기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지옥의 비밀이나 천국의 비밀에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마녀사냥 식으로 반대파 신학자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런 정죄방법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 목사 저서에서 보여주고 내용 가운데 아직 신학적으로 교리로 확정되지 않는 주제는 연구대상으로 삼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20.8.10. 한미신학포럼 기조연설 중에서, 권호덕 교수

신간소개

행복한 여정 50년

저자 박명윤 박사는 8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기자협 The Asian과 시사주간 논설위원, (The Jesus Times 논설)으로 매주 <青松 건강칼럼>과 <朴明淵 칼럼>을 집필하고 있는 현역 '건강 칼럼니스트'이다.

올해 결혼 50주년 금혼식(金婚式, Golden Wedding)을 맞아 <건강 100세 시대-행복한 여정 50년>을 출간하여 사랑하는 아내(이행자 전 고려대 교수)에게 헌정(獻呈)했다. 저자는 1965년 1월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70년 10월에 결혼하여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저자가 그동안 집필한 <青松 건강칼럼>과 <朴明淵 칼럼> 900여 편 중에서 50여 편을 선정하여 책으로 엮었다. 총 362쪽을 올컬러로 제작하였으며, 사진도 260매 이상 수록하였다. 박소연 꽃그림회가의 작품 6점을 표지와 속표지에 실었다.

책 내용은 5부로 나누어

1부 <건강한 삶>에는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당신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백세시대 롤모델 김형식 교수, 106세

현역의사의 장수비결, 오키나와 장수촌 등을 실었다.

2부 <행복한 삶>은 인생의 목표인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인을 위하여 교황의 행복 심개명, 행복의 비결, 행복을 주는 사람, 국민행복지수,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등을 개제했다.

3부 <코로나 이야기>는 요즘 국내 외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로 코로나 2차 대유행 공포, 바이러스성 질환과 면역력 강화, 코로나 사태와 정신건강,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관한 이야기이다.

4부 <여행 건문기>에는 여행을 좋아하는 저자가 국내외 여행을 통한 건문기와 북한 방문기를 실었다.

5부 <봉사활동의 보람>에는 저자가 회갑, 교회, 팔순 때 3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느낀 보람과 그동안 봉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파인트리클럽(PTC), 장학회, 동창회, 활동, 한국아동



학대에 방학

회, 다일공동체 등에 관하여 기술했다. <행복한 여정 50년>책 판매 수익금은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금으로 기탁한다.

저자는 연세대학교에 심장병 어린이 돕기 의료선교기금으로 5천만 원을 이미 기탁하였으며, 앞으로 5천만 원을 추가하여 1억 원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자 부부는 사후 시신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실습교육용으로 기증하기로 지난 1999년 1월 서약한 바 있다.

한미 신학포럼에서 밝혀진 성경해석의 새 지평 서사라 목사 저서에 대한 신학적 평가

마녀사냥식 정죄의 시대는 지났다!
천국과 지옥의 비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20.8.10. 한미신학포럼 기조연설 중 . 권호덕 교수)



조상열 박사(구약학)

- 평택대학교 신학과 졸업
- 미국 Gordonville Theological Seminary (M.Div., Th.D.)
-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Ph.D.)



권호덕 교수(조직신학)

- 홍익대학교 신학과(B.A.)
- 홍익대 신대원(M.Div., Ph.D.)
- 독일 뮌스터대학교 신학석사(Mag.theol.)
-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신학박사(Dr.theol.)



서요한 박사(역사신학)

- 홍익대 신학과, 합동신학원 졸업
- 영국 에버턴 대학교 석학석사(Th.M., 역사신학)
- 영국 남 웨일스 글라모르간대학교(Ph.D., 역사신학)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Post-Doctoral



Dr. Elmer Ray Masters

- College of the Sages(A.A.)
-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A., Ph.D., Candidate)
- School of Bible Theology and University (Th.B., Th.M., Th.D., Ph.D.)
- Colegio En Honduras De Medicina Naturopatica(M.D.)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England(Th.D.)
-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Ph.D.)



이재범 박사(선교학)

- 한신대 졸업(Th.B.)
- 서울신대원 졸업(M.A.)
- 풀러신학교대학원 졸업(Th. M., Ph. D.)
- 홍익대 대학원 졸업(M. Div. Ep.)



서요한 박사(조직신학)

- 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
- 미국역사사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수료)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 박사
- 미국 California 샌프란시스코 대학 목회학석사(M.Div.)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석사(Th.M.)
- 예명대학원대학교 신학박사(Th.D.)



서사라(서상아) 목사
Pastor Sarah seoh

이화여대 의대 주님의 사랑교회 담임
주님의 사랑 세계 선교센터 원장

한미신학포럼 성경해석의 새 지평

서사라 목사 저서에 대한 신학적 평가

발행처
조상열 박사(구약학, D.)
서요한 박사(역사신학, D.)
이재범 박사(선교학, D.)
권호덕 박사(조직신학, D.)
Dr. Masters(Ph.D.)

학술진흥재단

서사라 목사 저서



천국과 지옥 간증 수기 1

제 3권 - 계시록 이해

천국과 지옥 간증 수기 2

성경전 제1권 - 창세기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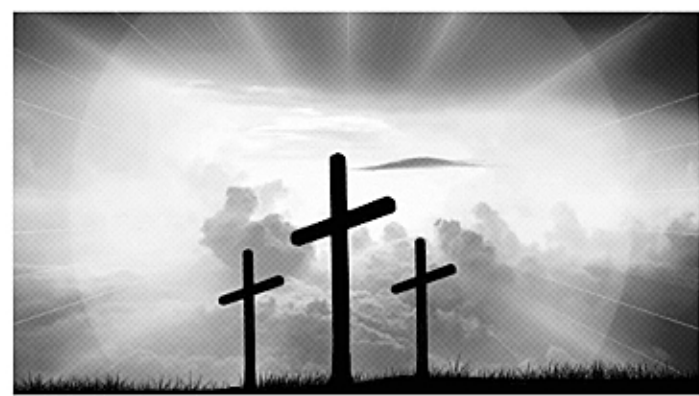
성경전 제2권 - 모세전

여호수아와 사사기

여호수아와 사사기

▶▶ 설교 ▶▶

왜 실패를 떠나야 하는가?



수 3:1-6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에서 이동하여 요단애 이르러서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던 중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카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실패이라는 장소를 떠나라고 명한다. 그래서 이른 실패를 떠나라는 여호수아의 외침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 역사: 초기 역사인데 이집트에서 카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광야로 빼내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때는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 이적, 기사, 표적, 홍해바다의 사건, 이집트의 군대들을 무찔러 주시는 사건, 그들이 요구하지 아니하였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시기이다.

두 번째 역사: 제2의 광야의 시기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이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투쟁의 시기이다. 광야에서 고난과 싸워 이겨야 할 40년의 시기이다.

세 번째 역사: 카나안 복지 약속의 땅, 젓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에서 국가를 건설하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이제 가족과 단란하게 지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는 시기,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약시대에 우리 성들의 3기의 모습을 보여 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1기는 영적 유아가의 시기이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특히 학습세대로 받은 것을 말하겠다. 이제 처음에는 기록적인,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상태를 의미한다.

제2기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기로 들어간다. 광야의 시기로 들어간다. 믿음을 사탄과 모든 시험과 싸워 이겨야 한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가야 될 성장기의 시기인 것이다.

제3기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소유 시기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누리며 사는 시기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떠나 이동하였듯이 오늘 나와 여러분도 실패같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서 떠나는 귀한 영적 진리를 말씀 속에서 3가지로 음미하며 은혜받기를 원한다.

1. 신앙적, 유아기 상태, 정탐하는 상태에서 떠나야 한다.

수 2:1 “나의 아들 여호수아가 실패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실패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러로 성에 정탐하러 보내던 장소이다. 그것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보내는 장소가 바로 실패이다. 정탐이라는 것은 몰래 형편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아보는 이러한 초기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영적 의미로는 신앙적인 유아기적인, 초기적인 정탐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영적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정탐은 한번쯤은 필요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항상 정탐하면 안 된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예수를 믿는지 여러 해가 지났고 학습세대로 받았고 매년마다 성찬에 동참하고 매년마다 부활에 동참은 잘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것인지 저것인지 정탐하는 믿음의 단계에 있다면 정탐하는 믿음의 단계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아직도 정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알수없을 때가 아직도 정탐만하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지 아니하실 것인지, 성경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예수가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아직도 정탐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에 머물러 있는 영적상태와 마찬가지로이다. 실패에 있다는 것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도 서론에 머무는 상태를 말한다.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초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고 유아기적인 것 먹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 그토록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건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잊지 못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에 빠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많은 증거들을 보았고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또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보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정탐하는 것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신이 없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정탐하는 요소가 있다. 그게 무엇인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이 그것이다. 세상의 철학, 이러한 모든 과학이나 지식들은 우리 신앙을 정탐하게 하는 것들이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유치원부터 모든 교육과정에서 세속적인 지식을 배웠지 않겠는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지식에 대해서 언제나 상반된 개념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탐하는 이러한 장소에 머무는 때가 많다는 얘기이다.

철학이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나 세상의 지식으로 머무는 때 배도하는 일에 너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사실이지 않겠는가, 기독교는 정탐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나서 생각해 보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철학은 생각하고 믿는 것이다. 먼저 생각하게 한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지 않겠는가, 키케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다. 유신론자이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성경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키케로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철학적 사고에 젖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탐하게 되는 것이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불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배웠던 모든 과학이나 지식이나 철학적인 사고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전 1:17 “내가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썼으나, 이것 역시 영의 교제임을 알았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고전 1:21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다. 이는 굉장한 말이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알지 못했다. 수학으로도 풀 수 없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른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도마의 사건을 보면 요 20:27-29 그는 정탐하는 신앙이었다. 주님을 3년이나 따라 다녔지만 확신이 없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애써서 가르쳤지만 그러나 믿지 않은 것이다. 진실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정탐하는 신앙이었다. 요 20:27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도마! 네 손으로 만져보라, 그리고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때, 도마가 만져 보았다. 지금까지 정탐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요 20:28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다. 도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깨어지는 순간이 다시 말하면 정탐하는 신앙에서 체험적인, 확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정탐하는 신앙을 버렸을 때 과감히 그가 열두 제자의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보았다. 골 2:8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애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지식들은 유치한 원리들이라고 했다. 이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지식들로는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들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정탐하는 신앙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I. 실패를 떠나야 한다.

이 말은 아카시아 나무에서 떠나라는 의미가 있다. 실패는 허브리 말로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다. 욥 3:18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실패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고 했다. 여기 실패 골짜기를 아카시아 골짜기라고 많이 해석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목양칼럼 (25)

애굽(세상)에서 광야(육신)로

(지나호 이어서)

20.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니 우리가 사망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3-6).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허락해 주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레아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적인 장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독약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으로 인해 불순종하여 독약을 먹으려 하는 자녀를 보는 순간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잠깐 놀라 독약을 빼앗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만드시고자 한다면 독약을 먹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때 독약을 먹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며 불순종한 자신과 그 결과를 원망하며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죽은 자녀를 살려준다면 살아난 자녀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참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 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자 할 때, 우리가 범죄하고자 할 때 막지 않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실족했을 때, 하나님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가 충분한 고통을 느끼며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독생자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이 강권하므로 악을 버리고 선을,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어둠을 버리고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잠 24:16)고 우리가 완전한 넘어짐을 당하여 자신이 죽은 자 같음과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심으로써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참 자녀를 얻으십니다. 완전수인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범죄해 넘어졌을 때, 환난과 시험을 통해 충분히 받으셔서 근본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행하시는 아버지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사 119:67).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사 119:71).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믿음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조영만 목사

A3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카넷에서 주보가능)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현금통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가능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 후면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경제적인 슈퍼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를 채택으로 유지비용 절감
- 대용량 용지 급지함 지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테이블(15만원) 옵션
이번에 주문하시는 분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K/C, M, Y 4개)를 더드립니다.

since 1989~
30년을 한결같이~



영광기업 TEL. 1588-0691 서울시 중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
대표이사: 정형영 대표 010-3651-8572, 010-5779-0691 인천공장: (계양구청 앞) 032-551-4114

●영광기업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계신 교회에●
특별한 혜택을 드리하고자
덤핑가격으로 드립니다.

【특허상품】LED십자가!

2020년도 교회 기념품, 선물용, 심방용, 임직용으로추천!
반석위에 십자가 대량/소량 판매중!

경기가 안좋으니 좋은제품을 덤핑가격으로 구입하세요.

●제품이 비싸고 못팔아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원가에 반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8만개(10만개 중 2만개 판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39,000원 / 기독교 백화점에서는 15,000원 / 인터넷에서는 10,000원 (*택배비 별도)
이 제품을 박스단위로 5,000원씩 (택배비포함)드리오니 복음과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감사합니다.

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형영 대표 ☎ 010-5779-0691 ☎ 010-3651-8572

웨신총회 제105회기 총회장 박정균 목사 연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지난 9월 21일(월)오후 2시 충남 공주시 반포면 사봉길 대전아름다운기독교원(원장 김대성 목사)에서 “목회자의 행복과 웨신총회”라는 주제로 웨신총회 제105회기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총회 증경총회장, 총회장과 임원들, 각 노회장과 임원 등 50여 명이 총대로 참석 거리를 두고 앉아 1부 예배, 성찬예식이 생략되고 2부 성총회 회무처리에 들어가 현 총회장과 임원 등이 유임 및 일부 신임원이 선출되었다. 이는 총회발전을 위해서 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로 뭉쳐 단합된 총회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하며 성총회가 성료됐다.

성총회에 앞서 제1부 제3 부총회장 마순덕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기도제 제2 부총회장 김현수 목사(꿈너머꿈교회), 성경봉독 “신명기 33:29”에 서기 황봉기 목사(사랑제일교회), 총회장 박정균 목사(대전번성교회), 총회장 박정균 목사(대전번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지난 9월 21일(월)오후 2시 충남 공주시 반포면 사봉길 대전아름다운기독교원(원장 김대성 목사)에서 “목회자의 행복과 웨신총회”라는 주제로 웨신총회 제105회기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총회 증경총회장, 총회장과 임원들, 각 노회장과 임원 등 50여 명이 총대로 참석 거리를 두고 앉아 1부 예배, 성찬예식이 생략되고 2부 성총회 회무처리에 들어가 현 총회장과 임원 등이 유임 및 일부 신임원이 선출되었다. 이는 총회발전을 위해서 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로 뭉쳐 단합된 총회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하며 성총회가 성료됐다.

성총회에 앞서 제1부 제3 부총회장 마순덕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기도제 제2 부총회장 김현수 목사(꿈너머꿈교회), 성경봉독 “신명기 33:29”에 서기 황봉기 목사(사랑제일교회), 총회장 박정균 목사(대전번성교회), 총회장 박정균 목사(대전번성교회)

서 권고했다. 또한 주의 종들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까지 항상 은혜가 있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성총회가 아름답게 끝나는 덕목을 갖추는 모범된 동역자가 되자며 당부했다.

이어 총회장 박정균 목사는 본 총회 직전총회장 허창범 목사를 작위 필리핀 파송 선교사 및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에 총회 교육선교사로 파송증명서를 대한예수교장

로회(웨신)총회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웨신총회 총무 이준영 목사의 총회에 관한 내용등을 광고했다.

또한 박정균 총회장은 수상자 각각의 이름을 삼행시하여 패에 담아 허창범 목사, 하종우 목사에게 功勞牌을, 이흥규 목사, 이영훈 목사에게 功勞牌을, 전순옥 목사, 오상열 목사에게 感謝牌을 전달했다. 이어 증경총회장 이흥규 목사가 감사와 축사를, 직전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성찬예식은 생략되었다.

제3부 회무처리를 위하여 부총회장 성용구 목사(수원송석교회)가 기도를, 서기 황봉기 목사가 총대호명, 의장의 개회선언 순서로 진행되었다.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박정균 목사가 총대들의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제105회기 총회장에 연임되고 제1 부총회장 김현수 목사(꿈너머꿈교회), 제2 부총회장 마순덕 목사(사랑하는교회), 제3 부총회장 이준영 목사(생명평안교회), 서기 황봉기 목사(사랑제일교회), 부서기 송대중 목사(열매맺는교회), 회의록서기 이스라엘 목사(나누리교회), 부회의록서기 이송태 목사(올타리선교회), 회계 김복래 목사(꿈과희망교회), 부회계 유병국 목사(성실교회), 총무 이준영 목사 등이 유임 또는 신임원에 선출되었으며 신규임원교체로 안전처리에 들어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거듭되는 만큼 모든 안건은 신임원에게 위임할 것을 결의하고 마쳤다.

취임사 총회장 박정균 목사

웨신 박정균 총회장 CUTS 명예박사학위 영득



코헨대학교 신학대학원(CUTS AAC) 정장원 국제총장은 지난 11월 7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정남중앙교회(류춘배 목사) 본당에서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감사예배를 드렸다.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 앞서 CUTS AAC 정장원 국제총장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이사장 이뇌용 박사가 기

도를, 학장 문장식 박사의 성경봉독(딤후 4:7-8), 음악대학원 방선이 교수가 특송을, 백석대신총회 양일호 총회장(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총동문 대표)은 “의의 면류관”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연이어 학위보고, 학위증서수여식, 감사패 전달식, 코헨대학교 재단이사장 Dr.Michelle Kang, Ph.D., D.C.E. CUTS 대표 축하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웨신총회 증경총회장 허창범 박사(CUTS AAC상당학 석좌교수), 피어선통합총회 증경총회장 원종문 박사(CUTS AAC실천신학 석좌교수)가 축사를, 웨신총회 총회장 박정균 박사(CUTS AAC 총장), 정남중앙교회 류춘배 목사(CUTS AAC 학술총장) 등이 답사를, 정

남중앙교회 박소정 권사의 축가, 육호기 박사(CUTS AAC 선교대학원장, 유럽 예수교장로회총회 초대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총회장 박정균 목사(대전 번성교회 담임)는 현)코헨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 캠퍼스(사이판 국제본부)총장, 동 대학 신대원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를 영득하고, 이어 성경신학 석좌교수로

임명받았다. 또한 정장원 박사, 류춘배 박사, 노태룡 박사, 박동환 박사, 이명수 박사, 이명옥 박사는 동 대학 신대원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아울러 윤석진 박사는 동 대학원 명예 신학박사를 취득했다.

CUTS AAC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은 현재 정장원교단인 미국 성경장로회총회와 개혁장로회총회, 백석대신총회, 웨신총회, 피어선통합총회, 합동개혁총회에 소속한 목사, 선교사, 교수들이 복음적인 연합선교로 함께하고 있다. 또한 코헨대학교 AAC 직영인 칼빈국제학술원과 몬테라고국제학교, 청주총회신학교, 한민족연합신학교, 한민족의료복지재단이 연합선교 및 연합공동체로 MOU를 맺고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선교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CUTS AAC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은 1987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해 설립된 정통보수신학교이며 세계 153개 국가에 신학교 분교가 세워졌다.

사를 마쳤다.

이어진 3부 폐회예배는 제1부총회장 김현수 목사의 인도로 회계 김복래 목사가 기도를, 총회장 박정균 목사는 출 15:22-27절을 중심으로 “마라에서 열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축도한 후 증경총회장 이영종 목사의 감사 및 덕담으로 축하와 격려를 했다. 총회장 박정균 목사는 헌법 정치 제17장 7조, 규칙 제5장 제22조인 폐회선언문을 낭독하고 총무 이준영 목사의 광고를 끝으로 제105회기 성총회가 성료되었다.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연임한 총회장 박정균 목사는 취임사에서 총회장으로서는 기도의 제목은 1. 웨신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본 교단이 2,000교회 이상으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3. 교단에 멋진 신학대학원대학교를 주시옵소서, 4. 총회에 자제건물과 사무실을 주시옵소서, 5.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와 구제하는 웨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리라 한 해 동안 이끌어갈 포부를 밝혔다.

박 총회장은 인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대부분의 요소는 언어생활이라고 했다. 잠 12:18-19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름은 산성 문지방 같으니라.”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非非”는 사라지고, 美人對稱만 총명한 웨신총회는 새로운 회기동안 非非 不是 사라지고, 美人對稱만 총명한 총회와 총회장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취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제105회기 총회 노회 임원 워크숍

주제 : “목회자의 행복과 웨신총회”(신 33:29)

총 회장

박정균 목사
번성교회

제1부총회장

김현수 목사
꿈너머꿈교회

제2부총회장

마순덕 목사
사랑하는교회

제3부총회장

이준영 목사
생명평안교회

서 기

황봉기 목사
사랑제일교회

회의록서기

이스라엘 목사
나누리교회

회 계

김복래 목사
꿈과희망교회

총 무

이준영 목사
생명평안교회

직전총회장

허창범 목사
푸른솔교회

웨신총회의 자랑
본 교단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모토로 성경 중심의 예배와 삶을 실천하고 가르치기로 서약하는 모든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가진 목회자들과 함께 교계의 표준총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교단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 회원 교단으로 연합과 화합에 협력하고 있다.
목사 안수 및 교단 가입 문의 : 010-8476-5282 / 총회장 박정균 목사(신학박사), 총무 이준영 목사 010-6878-1324

일시 : 2020년 11월 16(월)~17(화) 개회예배 17시
장소 : 세종 평화의 동산 (원장 피종진 목사)
주소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중말길 161

총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302호)
☎(02)835-2606-7 Fax (02)835-2608 http://ws21.org

제10회 르완다연합대학교 정기 기도회 개최

르완다연합대학교 교수 임명장 수여 및 4대 기업 대표와 MOU 체결해



를 알지나 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자신이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그래서 내가 죽고 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리 되신 그분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나

덕 부총장이 잘 준비하기를 원하고 르완다연합대학교 마무리 건축이 2020년 12월까지 완성하여 개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송성익 장로(사랑과 평화 대표, UAUR 고문)의 특송, 원종임 목사(명문선교회)가 헌금기도를, 강일순 김용진 선교사 파송장 전달과 파송기도를, 김호중 목사(열도비전교회)의 축도로 1부 순서를 마쳤다.

2부 임명장 및 학교 행사를 위하여 총장 이창기 박사는 르완다 한의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송영운 교수, 동 대학 설립준비위원회 강익분과 위원에 김대웅 교수, 동 대학 설립준비위원회 출판부와 위원에 김승수 대표, 동 대학 설립준비위원회 연구부와 위원에 이승우 연구소장, 르완다연합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문정자 교수 등에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송영운 교수의 취임사, 원종임 이사장(사단법인 국제교육문화교류기구/UAUR Chancellor)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날 르완다연합대학교 이창기 총장은 Puritan Reformed University 총장 John Kim, 글로벌생활주소협회 회장, 경기중장비교육원 차경호 대표, 코른헬스케어 김동현, 홍지신 대표 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르 수출공관 준비가 잘 되어 한국과 르완다를 잇는 가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또한 이관상 목사(CCC회개운동)는 UAUR 홍보와 회원들의 가정과 건강과 건축마무리 공사를 위한 후원모집이 잘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박성



에배가 진행되고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Cjtn tv 편집국장)가 기도드렸으며, 양현모 목사(회복교회)는 요 16:7-9절을 합동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양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중요하다면 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오셨다고 했다. 빌 2: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

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다.

아버지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램 36:31~참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며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했다. 종략, 우리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

국내외 유명 CCM, GOODTV서 맘껏 듣는다

카이오스, GOODTV와 CCM 음원 무상 제공 협약



▲ GOODTV 기독교복음방송과 음악작품 관리·유통사 카이오스는 미디어 콘텐츠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김명진 대표(왼쪽)와 카이오스 유덕경 이사

국내외 유명 CCM을 GOODTV에서 맘껏 들을 수 있게 됐다.

GOODTV 기독교복음방송(대표이사 김명진)과 음악작품 관리·유통사 카이오스(대표 김정의)는 3일 미디어 콘텐츠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카이오스는 국내외의 CCM 가수들의 음원을 유통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업이다. 최

근 세계 최대 음원기업인 유니버설뮤직 자회사인 캐피톨씨엠지

(CCMG)와 한국 내 기독교음악 독점관리 계약을 맺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CCM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카이오스가 자사의 저작권을 GOODTV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에서 비롯됐다. 카이오스 측은 "저작권을 맡긴 권리자들 중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미디어 콘텐츠가 방송에서 무상으로 사용되는 것을 흔쾌히 허락했다"고 전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카

이오스에서 유통하는 다양한 음악영상 콘텐츠를 GOODTV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GOODTV는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고, 카이오스는 CCM가수와 음원을 홍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GOODTV 김명진 대표이사는 "협약을 통해 GOODTV가 더 풍요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이오스 유덕경 이사는 "GOODTV가 보여준 신뢰를 잊지 않고 앞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저작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카이오스 김근화 대표와 장유진 대리인 GOODTV글로벌선교방송단 기관 기자로 등록하고 미디어 선교에 협력기로 약속했다.

세기총 동성애·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10월 28일(수)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컨스틴트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에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교계 및 정계 인사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진행은 지도목사 정성진 목사의 사회로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세기총 대표회장 박귀온 목사의 축도를 1부 예배를 드렸다.

조일래 목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사 55:6-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계 안에 서도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일래 목사는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그 말도 하기 어려워진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이것이 통과되도록 하면 안되겠다는 움직임이 바로 천만인서명운동본부다"라고 말하고 "이 반대 운동이 승리를 거두 하 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이 민족에 큰 축복이 되길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2부 발대식은 장현일 목사(한국 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와 황원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하여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경과보고를, 서정숙 의원(국민의 힘, 국회의원회차)이 축사를, 공동대표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총장, 5선국회의원)가 환영사를 하였으며, 학술위원장 정일웅 박사(전 총신대 총장)가 취지문을 낭독했다.

공동대표 김영진 장로는 환영사를 통해 지난 날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저지했던 일에 대해 회상하면서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냈는데 이런 일이 다

서명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전두지휘하게 되는 김희선 장로는 인사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가 진행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은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이 일을 준비하면서 여러 지인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통해 용기와 힘을 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와 문제를 넘어 우리 가정의 기본 행복권까지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하나님의 선한 창조섭리를 위해 하는 이 법이 다시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는 거론될 수 없도록 천만인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동성애·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 장관, 전 국회의원)와 김희선 장로(국회재단법인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세기총 후원이사장), 전용태 장로(법무법인(유) 로고스 고문변호사), 황우여 장로(전 사회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게 되며 교계 지도자들과 전 국회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의 문제를 넘어 가정의 기본 행복권까지 침해하는 악법"

시 시작된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사회가 개신교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만 못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한국교회가 일을 맡아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힘을 합쳐 서명운동으로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면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기에 올곧고 당당하게 이 운동에 함께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김희선 장로의 본부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위촉식이 진행된 후, 황의춘 목사(미주 한인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엄기호 목사(한국복음주의총연합회 총재)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자원위원 서대천 목사(예장합동부흥사회 대표회장)가 결의문을 낭독했다.

각 신학대학 전·현직 총장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영화감독 윤학열 감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담은 영화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으며 장현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가 정책위원장을 맡아 대정부부의 장구를 맡게 된다. 또 정일웅 박사(제4대 총신대학교 총장)가 학술위원장으로, 황우여 박사(전 교육부 장관, 전 사회부총리)가 법률위원장을 맡아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신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들을 조명한다.

한편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발대식 이후 홈페이지(<http://www.noqueer.com/>)와 각 교단과 단체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서명운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합동보수]총회 2020년 추수감사절

2020. 표어 : "거룩함을 회복하는 총회" [레 11:44~45]

총신대 이사장	총신대 학장	총신대학원장	직전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목사 (전북교회)	서동기 목사 (소망교회)	강대일 목사 (편안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서재식 목사 (종성교회)	전중록 목사 (연약교회)	강치현 목사 (말연교회)	김주현 목사 (별관교회)	송인섭 장로 (영문교회)	이정수 장로 (전북교회)	임상국 목사 (전북복지교회)

본 교단은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단과 개인, 기관의 가임을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 이사장 : 이규필 목사 H.P(010)7474-3173

총회 본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가산동) ☎ 02)854-1326, Fax 02)496-0181